

의사-복지부 7년만에 재격돌?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회가 지난 3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일축하며 정부 입법 형태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투약' 규정·표준의료지침 등 견해차 커

▲정부-의협, '배수의 진' 친 정면 대결 =의협은 3일 대의원 임시총회 뒤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이날 내놓은 성명도 강경 일반도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의료서비스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개혁"이라며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것이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만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집행부가 총사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은 5일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일단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켈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켈기대회 당일 오후는 집단 휴진키로 해 환자 불편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맞서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해 놓고 있다. 의협이 복지부와 6개 보건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에 참여, 의견을 개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 원가=가장 기초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부터 양측간 견해가 엇갈린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투약'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약'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통상적인 의료 행위에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맞서고 있다. 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표준의료지침

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의료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협은 의료가 규격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복지부와 의협은 '개정안 추가 협상단'을 구성해 놓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장동익 의협회장 양측이 합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협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협상단 가동이 어렵게 됐다. 실제 한 차례 협상에서 양측간 의견 차만 확인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일단은 양측간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의사들이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고 복지부는 이에 맞서 법적 수단 동원이라는 극한적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현장 김용덕·강상용 장로를 비롯한 10명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표들이 지난 1일 평양을 방문, 봉수교회 재건축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소환제 도입 포함 개혁을" 유급인턴보좌관제 포기할 듯

광주·전남개혁연대 촉구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개혁안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포함시켜 '포 포인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개혁연대(공동대표 김한배·김용출)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주요 정당이 2004년 총선 때 정치 개혁을 위해 국민소환제를 공약하고도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률은 지난해 3월 김재윤·강기정·양형일·지병문 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혁연대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헌법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지방정치인을 겨냥한 주민소환제만 도입하고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류동훈 사무처장은 "국민소환제는 대통령 임기 개헌과 마찬가지로 18대 국회가 개원할 경우 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우려가 커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향후 5년 동안 도입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혁연대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3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 발의에 의해 파면·소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의회, 오늘 임시회서 관련 예산 삭감안 상정

광주시의회가 5일 오전 제1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급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삭감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결의안은 진선거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중순부터 추진해오던 것.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4일 "인턴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은 많으나 아직 시민 정서와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돼 관련 예산 자진삭감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대부분 의원들이 동감을 표시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와 상관없이 광주시 집행부 측에서도 오는 5월 열릴 추경안 심의 때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삭

감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광주시의회와 집행부와 광주시의회가 충돌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예산 삭감을 결의한다면 그동안의 갈등이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주요 업무보고 및 상임위원별로 해당 실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공동묘지 등 설치 조례 개정안 등 8건의 조례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교원승진규정 개정안 반대

전남도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교사들의 농어촌지역 근무 기회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이에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우석 의원(민주·영암2)이 대표 발의한 '교원 승진규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관련 부처에 보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교원승진 평정의 선타가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대폭 축소

하고 근평 반영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교육부의 입법 예고안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면 근무평정 기간을 종전 '최근 2년'에서 '최근 5년' 이내로 재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상향 적용시켜야 한다"며 "또한 농어촌지역과 도서·벽지 근무교사에게 주었던 가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07년 새해 첫 선물로 추천! **한글 특육지육에 드리는**

라인이 정박

"우리나라는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커서 해외를 비롯해서 서구 국가들도 '한글'이 수입이 많은 품목입니다."

한글유명품

한글유명품은 우리 특육지육의 대표 상품입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하며, 건강에 좋습니다. 선물용으로最適한 품목입니다.

주: 011-925-778-7787
12월말 할인 011-925-2888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농어촌 영도지 가정을 값싸게 보낼게요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경동보일러 구입 시 추가 혜택은 무엇인가요?

- ▶ 고효율 심야 전기 보일러를 특별공급
- ▶ 목욕수 입욕용 보일러를 분
- ▶ 최고 신뢰성/내구성 보장
- ▶ 안전저수 온도 조절을 통한 심야 가열

▶ 무료 설치 서비스

▶ 10년 보증 서비스

따뜻도 비쌌던 겨울을 보낼게요!

▶ 심야 전기보일러

▶ 고효율 심야 전기 보일러

▶ 목욕수 보일러

▶ 안전저수 온도 조절

경동보일러

광주 0621673-4981 전남 010-9469-9373

이태리가구 전문점

CHIERE d'Arte s.p.a.
The 100% Made In Italy

이태리가구

▶ 1.2층 이태리점 ▶ 1.3층 이태리점

중주광역시 광주 김포로4차(구도동) ▶ 0621-028-7567